배움의 삶 · 나눔의 생활화 · 생명공동체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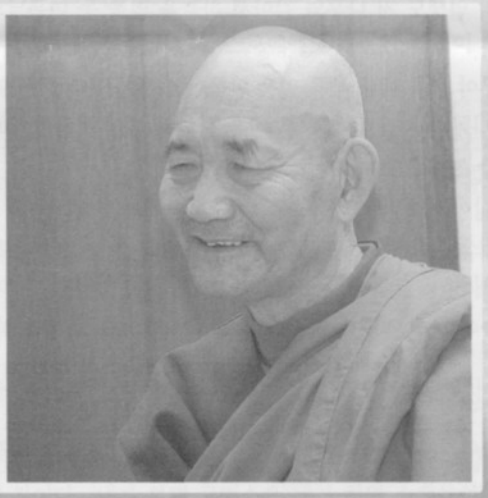
경기불교

• 발행처/ 경기불교문화원 • 이사장/ 김태제 • 발행인/ 진철희 • 편집인/ 권중서, 이기원, 양지현 • 주소/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101-3 4층
• 전화/ 031)251-1083, 257-1083 • FAX/ 031)251-1779 • http://www.paragate.org • E-mail : chin2002@hanmail.net

백신에게 듣는다(스무번째)

도성스님 초청 열린법회

■ 주제 : "현대인과 사성제"
■ 일시 : 불기2548(2004)년 11월 13일(토) 오후3시
■ 장소 : 경기불교문화원 큰법당



도성스님약력
▶ 1925년 평안남도 출생
▶ 1953년 부산 선암사에서 지월스님을 은사로 출가
▶ 선암사, 불국사, 석굴암 동화사 등지에서 정진
▶ 1977년 해인사 주지
▶ 1990년 해남 대둔사 주지
▶ 現 부산 태종사 회주

11월 사찰환경 답사

강화도 무애원 전등사 정수사 민통선

■ 일 시 : 불기2548(2004)년 11월14일(일)
■ 출발지 : 오전7시30분 경기불교문화원 앞
■ 동참금 : 30,000원 (중식/간식/여행자보험/사찰입장료 포함)

11월호

불기2548년(서기2004년) 11월 (통권 제15호) / 매월 1일 발행(월보)

목탁소리

늦어도 11월에는 생각해 봅시다

조계종 포교사 권 중 서

곱게 물들었던 단풍도 어제 밤 찬비에 흩날려 버리고 이젠 보여줄 것이라고는 오직 나의 내면의 세계를 보여줄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화려 했던 과거는 땅속에 묻어두어 내일을 기약하는 밑거름으로 새로운 싹을 준비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저 나무와 같아서 하늘을 덮을 듯 여름날의 기세는 어느덧 사라지고 이젠 힘들어 하는 육신을 달래가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무야 여름 내내 푸른 잎을 만들어 산새가 둥지를 틀고 풍뎅이가 집을 짓는 뭇 중생들을 살아가게 하는데 크게 보탬이 되었습니다만, 잘 나가던 시절 나 자신은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하였으며? 혹시 이웃에게 어깨동무의 정감은 사라진지 오래고 적 대 적인 감정으로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지나 않았는지?
내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컵 줄 여유는 없지나 않았는지?
곱게 물든 단풍과 눈 시릴 만큼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해 봅시다.

하늘이 나의 것인데 허공에 무엇인가 바삐 또 채우려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나 않는지 늦어도 11월에는 생각해 봅시다.

가을이라는 이름도 이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을이라는 말에 문득 청매 인오(1548-1623) 스님의 가을빛(秋色)이라는 선시가 생각납니다.

生滅非實相　나고 죽음은 진실한 모습이 아니나
實相是生滅　진실한 모습 역시 나고 죽음이라네
非春去又秋　봄은 가지 않고 가을 또한 오지 않았는데
靑葉染紅色　푸른 잎은 이미 붉게 물들었네

늦은 가을 11월 다시 한 번 달력을 넘기며 올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 왔는가?
하고자 하였던 모든 일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가?
세월은 나의 의지와는 달리 자꾸만 달아나고 있는데 나는 한없이 뒤처져 따라 붙을 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저 숲의 나무와 같이 화려한 단풍으로 이제 남은 두 달을 장식하여 봅시다. 모든 이의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아름다운 일로 올 한해를 마무리 해 봅시다.
11월 이 한 달 동안에는 일 년 동안 하여왔던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하고 되돌아봅시다.

마지막 12월은 몸과 마음을 쉬는 달로 생각합시다.
나뭇잎 떨어진 裸木처럼 당당히 세월에 대하고 북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준비를 합시다.
12월에는 새로운 한해를 위해 어떻게 하여 보람된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여유롭게 사유하여 봅시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년 봄 내 가슴에 희망의 싹을 돋아 향기로운 꽃을 피우는 계획을 세워봅시다. 경기불교

한방갈비 전문점 고향숯불갈비
대표 : 김 항 식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정자시장내
TEL : 031)256-0339 H.P : 016-425-4896

다도교육생모집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기초반)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중급반)
매월 둘째 네째 토요일 오후2시(사범반)

용심用心에서 빈부귀천이 나오고.....

보현진열 / 감로향사 분향주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일찍이 불교는 외친다. 초기 아함경전에서부터 화엄경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명제가 있다면 일체는 오로지 우리의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는 소식이다. 이것은 일반화된 상식에 속한다. 개인 뿐 아니라 나라 일도 그러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유례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질곡에 빠져 있어서 힘겨운 생활을 한다고 아우성이다. 그 경제적 빈곤이야말로 삶을 온통 지옥으로 만드는 골간이다. 사람들은 IMF 때 보다 더 힘들다고 하며, 정부를 향해 투정과 몽니를 부린다. 모든 것이 정부 탓인 것 같이.....

물론 위정자들이 90% 이상 정책을 잘못 운영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렇게 정치를 하도록 뽑아준 국민 스스로에게도 상응한 책임이 있을 것이다. 모든 책임은 결국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가고 마는 것이 역사의 상칙常則이다.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국민의 정치 수준 이상일 수 없다' 는 상투적인 명제도, 국민의 정치 상식이나 의식 수준에 따라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음을 말한다 하겠다. 일반화된 국민 의식인데, 그것을 좌우하는 것이 개인의 마음가짐이라고 한다면, 실로 마음의 문제는 우리의 생사화복이나 빈부귀천을 이루는 바로메타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경제나 정치란 것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가짐의 태도에 따라 얼마든지 양상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마음가짐이 맑아질수록 경제 정치도 맑아지는 것이며, 마음이 더러울수록 경제나 정치도 더러워진다는 것이 화엄경이나 원각경의 요지다. 곧 '마음이 청정하면 나라가 청정하고, 마음이 오염되면 나라도 오염된다' 고.

그런데 문제는 그 개개인의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나라의 모든 것을 역사화하는데, 사회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솔선수범해야만 '나라 청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위에서 모범이 보이지 않으면 아래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아 혼탁할 수 밖에 없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도 있지만, 여기서 '맑다'는 말은 반드시 도덕적인 낱말에 한한 것이 아니다. 이왕 합리적인 사회 체계를 만들어 운용한다면 서로에게 고르고 납득되는 합리적인 '맑음'인 것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네가 하면 스캔들이다' 하는 식으로 비합리적이어서는 곤란하다.
가령, 집안에서 부부가 맨날 치고 박고 싸운다면 자녀들이 커서도 그대로 엄마 아빠의 부부 삶을 본받아 살 것이다. 부모는 아이들의 교과서요,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다. 이 문제는 가정의 것만이 아니다. 가정의 확대가 사회요 국가라면, 오늘의 사회적인 문제도 어른들의 잘못 운용에서 찾아야 한다.

얼마 전에, 어느 초등학생 부친이, 자기 애가 하는 말이 같은 학급 애가 원조 교제한다 하니, 그러냐며 그 애 전화번호를 알아 가지고 그 학급 애를 꼬여 교제했다가 말썽을 빚었다는 뉴스를 접했다. 이러한 류의 의식 수준이 일반화된 사회 통념의 한 켠을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 사회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토대는 이러한 마음의 오염에서 다져진 열매가 대부분이다. 의식의 사회적 관념이 왜곡될수록 우리의 삶은 어둡고 고통스러울 것은 자명한 일이다.

아마도 이런 어두운 터널을 우리가 지나갈수록 짜증나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다행히 고통 속에서도 자성해서 바르게 사회적 룰이 개선된다면 값비싼 수업료를 지금 지불하고 있는 셈이지만, 만에 하나 정신 차리지 못한다면 미래가 없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마음을 갖느냐 하는 용심用心에 달려 있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합리적으로 사회적 룰을 운영하는 책임 있는 솔선수범의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나무 관세음 보살!

경기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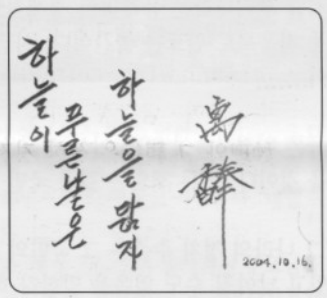
이진창 내과
원장/내과전문의 이 진 창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1075(기업은행2F)
Tel.031-237-3339 Fax.031-222-5228

경전강좌 (원각경)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불전강좌(원각경) 강사 : 가섭스님
기간 : 10주 (90,000원)

역 학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강사 : 보현진열 박사
기간 : 3개월 과정 (100,000원)

생활불교의 참모습

설봉스님



天高馬肥 계절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四字成語이나 틀을 뛰어넘어 해석한다면 하늘이 높다는 것은 정신적인 풍요를 말이 살찐다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렇게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야지 그렇지 않고 불교가 法執에 머무르면 참담한 결과만 있을 뿐입니다.

내가 선자리가 법당이고
내가 하는 행동이 불공이며
내가 갖는 마음이 기도이다

이와 같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청청해질 것이며 우리 불교가 제대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참된 의미는 불자라면 죽을 때까지 떨어질 수 가 없는 것으로 좋은 모습 좋은 말 좋은 생각을 갖도록 서원을 하는 것이니 이때 바로 그 자리가 법당이 되고 그 행동자체가 불공이 됩니다.

또 불공은 꼭 부처님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거지라도 모든 중생이 모두 불공의 대상이나 우리는 어리석은 탓으로 지혜가 없어 항상 생각이 산란하고 행동마저 떳떳치 못해 마음마저 맑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그자체가 법당이며 불공이며 기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우리 절 부처님은 영험하다 우리 스님은 법력이 뛰어나다 팔공산 갓바위 부처님은 소원 하나는 들어준다거나 하는 식의 신앙형태는 자칫 本末이 바뀔 수 있으므로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합니다.

불교의 첫째가는 실천덕목은 육바라밀에서 알 수 있듯이 보시입니다

우리는 흔히 보시는 물질적인 財보시나 정신적인 法보시만 알고 있으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 누구나 가능한 無財 7施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顔施 얼굴안자로 편안한 얼굴로 이웃에 기쁨을 주는 것을 말하며 더 설명이 필요 없이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얼굴을 연상하면 됩니다.

둘째로 眼施 눈 안자로 얼굴표정은 무엇보다 눈 모양으로 결정이 되다시피 하는 것이니 남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는 눈이야말로 무한한 기쁨의 힘이 됩니다.

셋째로 言施 아함경에서 사람은 입안에 날카로운 도끼 하나를 갖고 있어 자기도 다치고 남도 다치게 한다고 했으니 우리는 항상 바른 말 고운 말을 써야 합니다. 아무리 친근하고 격의 없는 사이라 해도 욕이 되는 말은 삼가야 되니 옛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무서운 인과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넷째로 行施 움직임 자체가 베품이 돼야 한다는 말이며 우리는 흔히 몸이 마음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나 나이 탓 자체가 바로 스스로 한계를 만들어 움츠려드는지도 모릅니다.

다섯째 心施 마음 씀이 중요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으니 셋으로 나누면 윗사람에게 하는 공경심, 아랫사람에게 하는 사랑, 동등한 사람에게 하는 믿음으로 베푼다면 이는 시방세계 모든 중생에게 베푸는 격이 됩니다.

여섯째 慈施 중생이 중생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은 바로 이 자비입니다.

일곱째 無畏施 이 두려움과 절망에 벗어나게 하는 무외시는 지금까지의 모든 보시가 포함되고 마무리 되는 보시를 말함이니 중생이 희구하는 근본적인 욕구이기도 합니다.

이상과 같은 보시라면 비록 재산이나 어떤 능력이 없더라도 누구나 한 가지는 가능한 보시이니 우리 불자라면 7가지 보시중 하나는 꼭 이루어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 불자는 자신의 신심을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포교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중 軍포교야 말로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가 없으니 본인의 체험을 말하고자 합니다.

모든 대상이 다 그렇지만 불교를 믿어라 절에 나와라 하는 의도적인 종교 권유보다 스스로 마음이 움직이도록 하기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몸으로 부딪치며 인간의 냄새를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병영생활에서 오는 신병의 어려움은 비록 불가능한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 주고 또 사병들의 어려움을 직접 찾아가서 들어주는 어렵고도 먼 종교지도자가 아니라 이웃집의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될 때 이것을 인간의 냄새라도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포교란 의도적인 法의 香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이 없어야 하며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香과 같아야 하되 무엇보다 사람의 情을 나누는 人香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佛法의 香이 無財7施의 실천으로부터 시작하여 나 하나에서 이 법당으로 나아가 이 지역을 넘어 나라 안에서 세계로 펴져 나가 기필코 이 땅을 불국정토로 만들어야 합니다. 경기불교

변호사 조 복 행
031)213-2211~3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2-2 남당빌딩 3층

양재홍 치과의원
사무실 : 241-1004 /
원장실 : 248-1616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Ⅰ)

가섭스님 / 본원 경전강좌 강사

1. 경의 제목

원명은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1卷이다. 범어로 Maha-vaipulya-purnabuddha-sutra-prasannartha-sutra이라 표기하며, 大方廣圓覺經, 圓覺修多羅了義經, 圓覺了義經, 圓覺經이라 약칭한다. 이 경은 석존이 문수 · 보현 · 금강장 · 미륵 · 청정혜 · 위덕자재 · 변음 · 정재업장 · 보각 · 원각 · 현선수 등 12보살들과의 문답을 통하여 대원각의 妙理와 그 觀行을 설한 경전이다. 원만한 깨달음을 수식하는 '大方廣' 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크고 올바르고 넓다' 는 뜻으로 깨달음의 본체와 형상과 활용을 상징한다. '修多羅' 는 법어 sutra의 음역으로서 일반적인 경전을 가르킨다. '了義' 는 가르침의 표현정도가 대승 궁극의 경지를 남김없이 완전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뜻으로 상황의 필요에 따라 단편적인 불완전하게 서술된 '不了義' 에 대조해 이 경의 뛰어남을 강조하고자 덧붙인 말이다. 경의 제목을 자세히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大는 體大 · 相大 · 用大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 體大는 圓覺의 體가 넓어 天地를 에워싸고 十方世界를 담아 넣으며 두렷함이 끝이 없음(如來藏 究竟圓滿等)을 말하고, 相大는 삼덕(三德 ; 法身 · 般若 · 解脫)을 具足하여 어떠한 법도 갖추지 않은 것이 없으며, 恒河沙 수보다 더 많은 깨끗한 공덕의 모습(陀羅尼門과 三德을 秘藏)을 말하고, 用大는 능히 범부도 되고 성인도 되며, 오염되거나 청정해 질 수도 있으며, 體 자체가 인연을 따라 일체 모든 법을 성취함(일체 청정한 진여와 보리와 열반 및 바라밀을 유출하여 보살을 가르친다/ 일체중생의 여러 가지 환화가 모두 여래의 圓覺妙心에서 생겨난다)을 의미한다.

方은 止 또는 正의 뜻으로 制止 · 安止 · 雙止로 나누어 말할 수 있는데 이를 모두 갖추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 편협하거나 삿되지 않은것 즉 올바르게 머물러야 邪見에 떨어지지 않는다를 의미한다. 지에는 세가지가 있으니, 첫째 制止는 허물을 벗어나서 시비를 끊어 사물의 드러난 모습을 초월하여 집착하지 않는 것(일체 허망한 경계를 멀리 여읜다)으로 지계를 말하며, 둘째 安止는 흩어진 마음을 모아 정념에 돌아가 올바른 뜻과 이치에 안주하는 것(觀門을 수습하고 覺性에 隨順한다)으로 지계의 모습을 보고 편안함을 의미한다. 세째로 雙止는 시비하는 알음알이가 다하여 能과 所를 다 잊는 것(깨달아 증득한 가운데 能과 所가 없고, 필경에는 무엇을 증득하거나 증득할 자도 없다)으로 마음과 일체세계가 어울려 하나 되는 아름다운 자리를 말한다.

廣은 自利行 · 利他行 · 自他平等의 圓融無際인 廣으로서 자리행은 만행을 갖추어 수행해서 모든 장애를 다 끝어내는 것, 이타행은 자리행에서 얻어진 이익을 일체중생에게 알려서 그들을 제도하여 해탈시키고자 하는 것, 자타평등 원융무제: 악을 끊음에 있어 끊은 것이 없고, 선을 행함에 있어 행하는 것이 없으며, 중생을 교화함에 있어 교화한 것이 없어, 지니거나 범한다는 상대적 경계가 사라지고 자타가 평등해진 것을 말한다.

圓은 自覺 · 他覺 · 究竟의 세가지 뜻이 있으니, 自覺은 미혹을 끊고서 부처의 공덕을 이루고 장애가 다하여 覺이 원만해진 것으로 개인의 수행을 말하고, 他覺는 널리 상중하 근기를 갖추어 똑같이 원각에 돌아가게 한 것으로 사회실천을 의미하며, 究竟은 증득하면서 증득한 것이 없고, 중생을 교화하면서 교화한 바가 없으며, 증득하거나 교화하는 것이 지극히 원만하여 어떠한 곳도 圓極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으로 올바른 자각으로 각타가 실천되면 일체 모두가 평화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覺은 本覺 · 始覺 · 本始無二의 覺(究竟覺)등 세가지 뜻이 있으니, 本覺은 자성청정심, 본래 청정한 覺體, 始覺은 무시이래의 번뇌를 수행에 의해 차례로 소멸시켜 心源의 覺, 本始無二의 覺은 무시의 무명을 떠나버린 본래 그 자리의 覺, 이를 원각이라고 한다. 아뇩다라삼먁삼보리라 한다. 아뇩다라(無上)가 大이고, 삼먁(正偏)이 方廣이며 삼보리(正覺)가 圓覺이다. 내가 능히 증득한 마음과 증득할 바의 마음이 있으면 참으로 증득한 것이 되지 못한다. 즉, 이 경은 일체 중생의 本來成佛을 바로 드러내려는 원각이라 하는 것이다. 경기불교

파스타 하우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동 1-5
중동BD 2F T.031-255-8843

세무사
전 종 환
TEL. 031)246-1177
FAX. 031)257-5533

옛날 낙수리
<낙지한마리 수제비>
낙수리해물탕 · 아구탕 · 낙지전골 · 해물파전 · 낙지찜
대표 주 희 연
체인점 문의 및 예약 244-8206 / 247-8716

부처님의 나라, 경주를 다녀와서

조성남 / 본원 사찰답사반원

10월 24일 아침! 가을의 아침기운을 흠뻑 마셔가며 태양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고, 우리내외는 서둘러 남문 경기불교문화원으로 향했다. 달만에 뵙는 불자님들의 아침인사와 미소.. 부처님의 나라 경주로 가는 우리 중생들은 기쁨으로 마음을 달래고 있었다.

얼만큼 달렸을까! 우리일행을 태운 버스는 어느덧 경주 천마총에 도착했다. 경주의 날씨는 더없이 가을향기를 내뿜고 있었다. 우리일행은 점심공양을 마치고 신라의 향기가 숨쉬고 있는 경주박물관에 입장했다. 천년의 고도문화를 간직한 신라인들의 고분과 유적 그리고 불국의 나라답게 찬란한 금관문화! 그 모든 것이 한국불교문화의 원류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생활상을 통해서 불교문화의 찬란했던 성장기를 한눈에 엿볼 수 있었다. 경주는 서라벌이라고도 불리며 태양이 제일먼저 비춰주는 성스러운 땅이라는 뜻이다.

이내 우리일행은 서둘러 불국사로 향했다. 청운교백운교를 끼고돌아 불국사 경내로 들어선다. 대웅전 앞마당에 우뚝 솟은 두 탑, 석가탑과 다보탑! 권중서 포교사님의 열심 강의에 우리일행은 귀를 기울인다. 탑은 한번도 그 자리를 떠난 적이 없으련만 아주 먼 길을 돌아 다시 만난 느낌이다. 두 탑의 아름다움은 역시 화려함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느낄 수 있었다. 석가탑은 내년에 전면해체 보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면해체는 처음임) 헐기 전 석가탑의 모습, 탑이 내뿜고 있는 숨결을 가슴에 담아두고 싶었다. 대웅전으로 눈을 돌린다. 대웅전의 단청은 고색창연하다. 천년의 고찰에서는 모든 것이 가르침이다. 사찰동쪽의 소나무 숲, 제멋대로인 듯 하면서 규칙이 있고 자유롭다. 내일 아침에도 태양은 그 숲을 지나 토함산 불국사 대웅전 마당으로 들어 올 것이다. 천년을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일행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토함산을 굽이굽이 돌고 돌아 석굴암으로 들어선다. 석굴암은 신라 경덕왕 10년(752), 재상 김대성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했다. 자연석을 이용해 돔형으로 세운 위로 흙을 덮어 마치 굴처럼 보이게 성축되어 있다. 불상이 모셔져 있다.(팔부중상, 금강역사사천왕상,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음보살 등) 석굴암은 한국불교예술의 극치이며 통일신라시대의 깊은 종교적 열정과 고도의 예술성 세계가 인정하는 과학적 힘이 생동하는 석굴도량임에 틀림없다.

해는 어느덧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우리중생들은 서둘러 토함산을 돌고 돌아 감포 방향으로 내달린다. 잠시 후 토함산자락인 함월산에 위치한 골굴사에 도착했다. 주지스님이 우리일행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다. 골굴사의 창건과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흔적을 요점 정리하여 말씀하신다. 말씀에 의하면 골굴사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찰이었으나 15년 전, 당시의 주지스님이 입적하여 사찰을 재정비하고 증축하고 도로를 만들어 지금은 수많은 불자들이 찾는다고 한다. 골굴사는 여러 개의 동굴군으로 형성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석굴사원이며 그 옛날 화랑들이 수련하던 심신 수행법인 선무도의 총본산으로 선무도를 전승, 보급하고 있는 사찰이다. 불교무술 및 불교위방 전문지도자 양성을 위한 선무도 대학도 운영 중이다.

석굴의 주불은 마애아미타불이며 문무대왕 수중릉을 향하고 있다. 신라말기의 대표적불상이다. 주위에 관음굴, 지장굴, 약사굴, 산신당, 칠성당 등 굴법당들이 모여 있는 전형적인 석굴사원이다. 어느새 석굴 주변은 어둠이 짙게 내리고 저녁공양을 하였다. 꿀맛이다. 밤별들이 유난히 반짝거리는 속에서 마시는 커피한잔 또한.....

부처님의 나라! 경주..... 번잡한 일상과 도시를 떠나 맑은 공기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심신의 휴식을 취해본다. 부처님과 함께하는 신행생활! 불교를 택한 나의 인연은 행복하다. 건강한 신행자가 되기 위해 꾸준한 수행을 다짐해본다. 저녁시간, 선요가 맛보기체험과 수련자들의 선무도 시범관람이 있었다. 그들이 존경스럽다. 골굴사에서 하룻밤을 보낸다.

다음날, 부처님과 함께하는 새벽예불 목탁소리에 나의신행은 숙연해진다. 어느덧 아침공양을 마치고 불자들의 움직임이 바쁘다.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바다에 나투하신 문무대왕 수중릉으로 향했다. 죽은 후에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유언으로 문무대왕의 혼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서 세계에서도 유래가 없는 수중릉이다. 그리고 문무대왕의 호국충정을 기리는 뜻으로 아들 신문왕이 완공한 절, 감은사지. 그리고 그 앞에 동서로 세워진 삼층석탑! 지금은 절터만 남아있지만 통일신라의 웅장함과 장중함을 느낄 수 있었다. 내년에 삼층석탑도 해체보수하고 절도 복원한다고 한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경주 남산으로 향했다. 남산은 신라시대의 불교유적지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절터만 112군데(암자포함), 신라인과 호흡을 같이한 신성시된 산이다. 이곳을 우리일행은 약 5시간에 걸쳐 등산하듯 신행생활을 체험하였다. 땀도 흘리고 다리도 후들거렸지만 부처님의 나라 경주에서 보낸 1박2일 풀코스는 내 인생에 잊지 못할 사찰환경답사였다. 열심히 설하신 권중서포교사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중생을 위해 애써주시는 진철희 원장님 그리고 용민숙 간사님, 동행 한 불자님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경기불교

10월 후원회비 내주신 분들 (10월1일~10월31일)

정성어린 후원금 감사합니다.

김태제 조권형 최명길 김영희 양준영 권중서 현병국 이옥자 최정자 이난호 송호윤 이종만 김정숙 양정례 정현숙 파라가테
주인수 윤광숙 김미월 이대곤 강영진 이상범 박청용 김준옥 장옥훈 박선현 윤영예 민춘홍 염규용 심화식 차용희 5기
임장근 박경아 이기순 진철희 진주범 강재수 이기원 안영찬 김대성 김은주 김용필 조명숙 이병일 한혜승 조창윤
박순이 장용집 이선우 김순자 윤영무 김기현 이임성 이영옥 김영동 김정수 진상범 이남덕 조병희 조남종 이태갑 (75명
이정배 홍인숙 권승하 김의순 정무근 구광국 김말수 주영월 한경숙 이태순 진기홍 김순옥 배민한 문양순 김준호 2,548,540원)

KTF 신영통 전속대리점
011, 017번호 그대로 가입하세요
031-255-5800
대표 안 창 호
Phone A/S대행 신규가입,
요금수납, 기기변경
명의변경, 보상판매

세종 법무사사무소
법무사 염 규 용
TEL. 031)212-0033
H.P 018-313-3838

경기불교 소식

● 백인에게 듣는다(열아홉번째)

이번달 백인에게 듣는다는 10월 16일 무애원의 설봉스님을 모시고 열렸습니다.
'생활불교의 참모습'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강연은 "무재칠보시"를 행하는 방향을 알기쉽고 명쾌하게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참석하여 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10월 사찰환경답사

10월 사찰환경답사는 천년불교가 숨쉬고 있는 경주의 국립박물관, 불국사 석굴암에서 부처님의 온기를 느꼈으며 골굴사에서 선무도 체험과 남산에서 부처님의 가피를 듬뿍 담아 돌아왔습니다.

● 보현진열박사 「사주핵심강의(上)」 출판기념회

지난 10월 27일 오후7시에 평소 보현진열박사와 인연이 깊었던 제주도 관통사 진무스님, 논산 대원사 석용스님, 청북 대승사 성종스님, 조계종 불학연구소 철우스님과 평화통일 불교협회 정인악 이사장, 수원시의회 이태호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70여명의 불자님들을 모시고 본원 대법당에서 보현진열박사의 출판기념회가 여법하게 개최되었습니다. 축하공연은 단국대학원에서 국악을 공부하는 이주연 일행의 창과 대금, 가야금 열창으로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음달 행사안내

● 인도 8대 성지 걸망순례

경기불교문화원(원장/진철희)에서 부처님의 8대 성지를 걸망으로 순례합니다. 일정은 2004년 12월23일~2005년 1월12일(20박21일)이며 동참금은 198만원(예정)입니다 접수마감은 11월22일까지이며 많은 동참으로 부처님과 인연을 맺기 바랍니다.

인천→델리→자이샬메르→녹야원→부다가야→라지기르→쿠시나가르→쉬라바스티→룸비니→카트만두→인천

연락처 간사 용민숙 ☎031)251-1083

● 후원자의 밤

- 일시 : 불기2548(2004)년 12월 16일
- 장소 : 신흔뷔폐 연회장 (4층)
- 대상 : 후원회원 및 강좌별수강생
- 행사 : 장기자랑, 초청가수
- 동참금 : 15,000원

"12월 사찰환경답사"는 12월 19일 셋째주 일요일 오전7시30분 춘천 청평사
"스물한번째 백인에게듣는다"는 12월 18일 셋째주 토요일에 실시합니다.

도심속에서 여유로움을...

수시모집

가을학기 수강생 모집

수강기간 3~5개월 과정

과 정	과목명	강사명	수강인원	수강료	수업내용	수 업 일	비고
불교강좌	불교의식반	권혁찬	20명	3개월 60,000원	불교의식(목탁,집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수시
	기초교리	전문법사	30명	3개월 50,000원	불교기초교리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수시
	경전강좌	가섭스님	30명	10주 90,000원	원각경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수시
	참선강좌	김태완	20명	4주 20,000원	육조단경	매월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오후 1시	수시
	불교미술의 이해	권중서	20명	3개월(12주) 90,000원	한국 불교미술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수시
	불교문화대학	대덕스님	40명	4주 50,000원	불교전문인 양성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문화강좌	요가반	장순이	20명	3개월 90,000원	생활요가(주2회)	매주 월/목요일 오전 11시	수시
		문명순				매주 월/목요일 오후 7시	수시
	단전호흡	백종복	20명	3개월 60,000원	단전호흡	매주 화/목요일 오후 3시	수시
	우리춤 배우기	이순자	20명	5개월 100,000원	기본무, 살풀이, 한국무용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수시
	다도기초반	권섭순	20명	3개월 90,000원	다도 기초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수시
	다도중급반	윤영예	20명	3개월 90,000원	다도 중급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수시
	생활역학	보현진열	20명	12주 100,000원	역학, 운세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수시
	중국어회화	최경희	20명	3개월 60,000원	생활중국어 회화	매주 월/수요일 오후 4시 30분	초, 중등생 / 수시
	영어회화	박영희	20명	3개월 60,000원	생활영어 회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주부반 / 수시
	경락반	고칠성	20명	3개월 60,000원	한방경락, 건강관리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수시
	백인에게 듣는다	대덕스님 교수진	100명	무료	열린법회	매월 2주 토요일 오후 3시	11월 13일 오후 3시
	사찰환경 답사반	전문안내원	40명	30,000원	강화도 무애원	둘째주 일요일 오전 7시30분	11월 14일

■회원가입안내

경기불교문화원에서는 회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강의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 회원에 가입하시면 1년간 "회원등"을 밝혀드리며 후원 회원님들의 회비는 본원의 운영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배려와 나눔과 생명공동체 실현에 쓰여집니다. ※각종 후원금은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금은행 : 신한은행 602-02-512120 경기불교문화원 김태제**

• 후원회원 : 월 10,000원 (초.중등학생 : 5,000원) 이상을 납부하는 개인 이나 단체
• 전화주시면 은행에 가실 필요없이 CMS로 즉시 처리하여 드립니다.
TEL.031-251-1083/ 257-1083 FAX. 031-251-1779